

내달부터 특별채무감면조치

전북신보, 연체이자 면제·분할상환 허용기간 2배 확대 등

전북신보보증재단(이사장 유용우, 이하 전북신보)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의 경제 적 환경 개선과 신용회복 및 재기 지원 마련을 위해 4월부터 6월까지 채무감면 특별조치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시행 기간 동안 채무분할상환 약정 체결 채무자에게 ▲연체이자(손해금) 면제, ▲분할상환 허용기간 2배

확대 ▲연체보증인의 채무부담 추가 완화 등 혜택을 부여한다. 우선 연 8~15%로 적용되는 연체이 자율을 채무자에 따라 전액 면제하고, 채무금액에 따라 2~4년 정도의 채무 상환 기간을 최장 10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게 한다.

또한 분할상환 채무자도 상환약정금 액의 10% 이상 상환 시 신용관리정보 도 조기해제가 가능하다.

유용우 이사장은 "이번 특별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들의 재 기지원의 첫 걸음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조치 기간 동안 손해금 등 채무면제 혜택으로 신용회복과 더불어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전북신보보증재 단 홈페이지(www.jbcredit.or.kr)와 재기 지원부(230-3333)에 문의하면 친절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최대희 기자



전북도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세텍에서 열린 '2022 메가쇼 시즌'에서 '전북은 간부, 운동회 하는 날' 컨셉으로 전통식품 공동관을 운영했다.

'전북은 간부, 운동회 하는 날'

바이오진흥원, 서울 '메가쇼 시즌'서 전통식품 공동관 운영
도내 업체 25곳 판로개척... 총 1억5000만원 매출성과

전북도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김동수)은 지난 24일부터 27일 까지 서울 세텍에서 열린 '2022 메가 쇼 시즌'에서 '전북은 간부 운동회 하는 날' 컨셉으로 전통식품 공동관을 운영했다.

28일 진흥원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뉴트로(새로움과 복고)를 합친 신조어) 감성을 가미한 공동관을 운영했으며, 사전에 참가사 컨설팅을 진행해 복고 풍 제품개념, 비즈니스 마인드 개선,

홍보이벤트 등을 연계한 판로개척 마 케팅으로 기업 변화에 중점을 두고 운영했다.

그 결과 도내 전통식품 기업 25개사 의 판로개척을 돕고, 현장매출 약 9,000만원, 계약성과 6,000만원 등 총 1억5,000만원의 매출성과를 올렸다. 이번 노력에 힘입어 이번 행사 현장 매출은 단일 행사 참가기준 최고 매출 성과를 기록했으며, '홍시공, 뽕의도 리, 흠뻑 장안산현배, 사립당부드, 밥

닥' 등 10개 사가 완판하는 성과도 달 성했다.

또한 국내 백화점 마트 현대홈쇼핑 등 대형유통사에서도 차별화된 전북 관의 특권행사 유치관련 요청세도가 많았다. 이날 대형백화점 MD바이어는 "기존 지역 특산물전과의 뚜렷한 차별 성이 있어 판로개척에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김동수 원장은 "이번 행사는 코로나 19 상황 속 불경기에 어려움을 겪는 전북 전통식품 기업들에게 희망을 주고 다양한 판로개척과 현지 소비 자들에게 전북 전통식품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식품산 업 수도인 전북 전통식품의 우수성 을 널리 알리고 다양한 유통 채널에 입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 고 밝혔다. /최대희 기자

'디지털 트윈국토' 확대, 재난 재해 예측

LX, 성과공유 간담회
'전북도와 협력 확대해야'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는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방문한 가운데 '한국판 뉴딜2.0'의 대표과제인 '디지털 트윈'을 주제로 성과 공유 간담회를 지난 28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디지털 트윈국 토 사업 추진 현황과 성과를 점검하 고 발전방향에 대한 LX공사의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LX공사는 2018년부터 시작해 기반 구축이 완료된 디지털 트윈 전주 를 시연하고 하천 모니터 링, 재난재해(대풍·침수 등) 예측, 어 린이보호구역 등 행정 서비스 모델을 소개했다.

김윤덕 의원은 "디지털트윈은 의사 결정의 비용과 시간을 단축하고, 위험 사고 예방·탄소배출 감소 등에 기여 하는 핵심 기술"이라며 "50% 노후 화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재해 예방을 위해 디지털트윈 기반 구축 노력을 강 조하는 한편 광역자치단체와의 협업 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LX 최승욱 공간정보본부장은 "디지 털 트윈국토 시범사업에서 도출된 행정 서비스 모델을 활용할 수 있도



이강성 기초실장(사진 왼쪽),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 김정렬 사장, 최승욱 공간정보본부장이 '디지털 트윈국토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LX공사 제공)

록, 충북도청에 플랫폼을 구축한 선 례가 있기 때문에 디지털트윈 확대 를 위해 협업 사례를 적극 찾겠다" 고 말했다.

김정렬 사장은 "공사법이 제정되면 디지털 경제 시대를 선도하는 공간정 보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공간정보산업을 지역 의 거점산업으로 육성시켜 전북이 공

간정보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북 도 등과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기관별로 구축하는 3D 공간정보 데이터의 상호 운용성 확보를 위한 표준과 품질 관리 강화 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직접 발의한 LX공사법 제정의 필요성에 힘을 실어 다. /최대희 기자

트랩 설치 후 예찰 꼼꼼하게

농진청, 봄철 사과나무 피해 '나무잠' 예방법 제시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나무잠류 침입으로 사과나 무 과실을 막기 위한 예찰과 방 제 요령을 28일 제시했다.

겨울 동안 언 피해 등으로 사 과나무 세력이 좋지 않다면 4월 중순부터 5월 사이 나무잠류가 침입해 나무가 죽는 피해가 발생한다.

나무잠이란 과일나무 등에 발생 하는 해충으로, 사과나무에 피해를 주는 나무잠은 암브로시아나무잠, 오리나무잠, 붉은목나무잠, 사과중 근나무잠 등 4종이 있으며 암브로 시아나무잠이 60% 이상을 차지한 다.

이 중 겨울을 난 나무잠류 어른 벌레는 사과나무 눈이 트는 발아 기부터 4월 중하순쯤 나무로 지름 1~2mm의 구멍을 뚫고 들어가 침 입 구멍으로 하얀 분말 가루를 내 보낸다.

이와 같은 피해를 본 나무는 잎 이 시들고 공생균(암브로시아균) 에 의해 목질부가 부패해 급격히 쇠약해지고 심하면 말라 죽게 된 다.

초봄에는 어린나무(유목)에 집중 적으로 침입하고, 여름철에는 주로 큰 나무(성목)에 침입한다. 비가 많이 내려 뿌리가 습기 피해를 받 으면 나무가 약해진 이듬해 피해



가 더 큰 편이 다.

이를 막기 위 해서는 나무잠 류의 침입 초기 발견이 어려운 만큼 미리 살피 는 것이 중요하 다. 나무잠류 예찰에는 70%

알코올을 유인제로 사용하는 끈 끈 이 트랩(장치)을 활용하면 나무잠 류 암수 모두를 유인할 수 있다.

트랩은 3월 말부터 5월 초까지 매달아 두고, 과수원 가장자리나 과수원 외부 다른 나무에 설치해 도 된다. 예찰은 1주에 2회 이상 하고, 나무잠이 갑자기 100마리 이 상 포획됐다면 바로 방제하는 것 이 좋다.

특히 나무잠류는 낮 최고기온이 20도(C) 이상이고 바람이 없는 날 오후, 과수원 외부에서 과수원 안 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적용 약제(아세티키프리드 +부프로제진 유제, 펜타이이트 유 제)를 줄기 부분(지면에서 1m 이 내)에 뿌리면 침입하는 나무잠 수 를 줄이는데 효과를 볼 수 있다.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과 연구소 이동혁 소장은 "이상고온 등 기후변화로 나무잠류 발생 시 기가 달라질 수 있다"며 "농가에 서 안정적으로 사과를 생산하도록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예찰 과 방제 방법을 홍보하겠다"고 전 했다. /최대희 기자

청년나래이음 일자리 지원
선정 224개 기업 대상 설명회

전북도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은 28 일부터 4월 1일까지 청년나래이음 일 자리 지원사업에 선정된 224개 기업 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 혔다.

청년나래이음 일자리 지원은 고용기 업에는 1인당 160만 원의 인건비를 최 대 2년간 지원하고, 미취업 청년에게 정규직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고용 촉 진 사업이다.

특히, 청년에게는 2년 근무 시 3년간차 에 분기별 250만 원씩 최대 1,000만 원 의 특별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기업은 인력수급을 돕는 동시에 인 건비 부담을 덜고 청년은 일자리 마 련과 장기근속 유도 지역 정착을 도 모한다.

도는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의 전반적인 사업소개, 참여기업의 책무, 인건비 신청방법 안내, 의견청취를 중 심으로 설명회를 진행한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신뢰감 있는 관 계를 구축해 향후 원활한 사업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효율적인 사업 운 영을 위해 인건비 신청 및 서류 제출 이 원스톱으로 가능한 별도의 사업 누리집(www.1577-0365.or.kr)을 구축했 다.

홈페이지를 활용한 인건비 신청, 서류제출 등 인건비 신청방법 교육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도는 3월말까지 모든 참여 기업 및 청년 매칭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유호상 기자

경진원, 울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 주관기관 선정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이현 웅, 이하 경진원)이 지난 28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추진하는 '2022년 희망리턴패키지 경 영개선·재창업 사업' 주관기관에 최종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매출액 감 소, 저신용 소상공인 또는 폐업 후 유 망·특화·융복합 분야 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이며, 선정된 소상공 인은 8개월의 협약기간 동안 교육, 전 문 컨설팅을 통한 컨설팅 사업회차 원금 등 종합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사업 진행단계를 고려한 뒤 유형별 지원을 통해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한편 희망리턴패키지는 4월 모집공 고 예정에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 진원 혁신창업팀(063-711-2141,2151)에 문의하면 된다. /최대희 기자



전북농협은 28일부터 젤리형 아이스팩 수거 캠페인을 실시했다.

젤리형 아이스팩 수거로 탄소중립 실천

전북농협서 캠페인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탄소중 립 실천을 위한 젤리형 아이스팩 수거 캠페인을 28일부터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 수거대상은 소각이 어 렵고 매립 시 자연분해까지 500년 이 상 걸려, 폐기할 경우 심각한 환경오 염을 일으키는 고품수성수지 젤 타입 아이스팩이다. 전북농협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올해 10월말까지 진행되며, 정부의 2050탄소중립에 동참하려는 의 미로 수거 목표를 최소 2,050개로 정 하고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 하고 있다.

한편 전북농협은 올해 핵심사업 중 하나로 탄소다이어트 사업을 선정해, 아이스팩 수거 뿐 아니라 녹색제품 구

입,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가입, 종이 없는 회의문화 정착, 스마트농업 확산, 로컬푸드 활성화 등 전 사업 분야에 적용해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지난해 한국환경공단 전북환경 본부와 아이스팩 수거 및 재활용, 폐 기물 불법투기 명예순찰단 위촉, 영농 폐기물 재활용사업 분야에 공동 협력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적 극적인 ESG경영을 펼치고 있다.

정재호 본부장은 "이번 아이스팩 수 거 및 재활용 캠페인이 자원순환 활 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 기를 기대한다"며 "수거된 아이스팩 은 향후 전농시장 내 상인, 소상공인 에게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희 기자

'스마트공장 도입 중기

미도입 기업보다 탁월'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내·중소기업 상생협(삼성) 스마트공 장 구축 지원사업'을 성과분석한 결 과, 도약한 기업의 경영성과가 미도입 기업보다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28 일 밝혔다. 이번 성과분석은 2018~2019 년에 이 사업에 참여해 중소기업부 은 중소기업, 삼성으로부터 지원 받 은 중소기업 82개 사와, 매출 업종·매 출액 구간의 스마트공장 미도입 중소기 업 2553개 사의 재무제표 비교를 통해 이뤄졌다.

분석 결과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기 업이 미도입 기업 보다 영업이익 37.6%p, 매출액 11.4%p, 부가가치 23.4%p, 총급여수 3.2%p 더 높았다. 도입 기업은 도입 전 대비 영업이익은 26.1%, 매출액은 13.7%, 부가가치는 22.0% 성장 하는 성과를 냈으며, 총급여 수도 0.8% 증가한 반면, 미도입 기업의 경우 같은 기간 매출액은 2.3% 증가에 그쳤으며, 영업이익(-11.5%)과 부가가치(-1.4%)는 역성장하고, 고용도 2.4% 감소해 스마트 공장 도입 여부가 기업성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스마트공장 수준을 고도화한 첫출 제조업체(주)대동리팜은 현장 관리시스템(MES) 도입과 현장혁신 활 동을 통해 납기 대응력을 높이고 품질 경쟁력을 확보, 스마트공장 고도화 이 전 대비 매출이 21% 증가하는 성과가 나타났다. /최대희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일입니다.